

〈제 75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광주은행, 비대면 전용 ‘텔레파시적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비대면 전용 상품인 ‘텔레파시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과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텔레파시적금’은 정액적립식 기준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하여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년제로

가입 가능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탄탄한 기본금리는 물론, 금융에 즐거움을 더한 ‘편(Fun)세이빙’ 트렌드를 반영한 금융상품을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 대상 가두캠페인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대인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가두캠페인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대인시장을 시작으로 장금이 결연을 맺은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실시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신세계

◆다양한 '팝업 스토어'로 소비자 초대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다양한 팝업 스토어(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사라지는 매장)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패딩 등 겨울 의류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패딩 팝업 기획전 등을 준비했다”며 “소비자들이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평소 만나기 힘든 브랜드를 직접 접하며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병원

◆이주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광주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무료 건강검진 행사는 통역사를 배치해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을 도와 검진을 진행하며, 추후 건강검진 결과지 및 질환별 안내문을 전달하고 이상 소견 발견 시 추가 상담이나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광주 이주민 비율은 증가세에 있으며 이주민의 체류기간 장기화·정주화되는 반면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아쉬운 실정”이라며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광주 거주 이주민의 건강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주민 건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이주민 건강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장기적 관점의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하반기 관리자 워크숍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2023년 하반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워크숍은 안영근 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4차 환자경험 평가 준비현황(정선영 의료질관리과장) ▲2023년 하반기 주요현안(윤경철 기획조정실장) ▲ReSet Hwasun(조성범 화순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빛고을전남대병원 현안(박경순 빛고을전남대병원 기획연구부장) 등이 발표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관리자들의 노력으로 올해 병원 주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새병원 건립을 비롯해 각 분원마다 많은 현안들이 있는 만큼 서로 힘을 모아 우리나라 최고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전KPS

◆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에 맞춤형 재능 기부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원덕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와 ‘마을통합돌봄센터’ 시니어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하였다.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는 홀몸 및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

건조·배달을 해주는 사업이며, 마을통합돌봄센터는 빨래바구니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병원 동행, 주택 정리수납, 부속품 교체,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돌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앞으로도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정책에 이바지함은 물론 한전KPS 삼척사업소만의 세심한 맞춤형 후원과 삼척시니어클럽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해양에너지

◆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캠페인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주)해양에너지는 광산구 해광상그릴라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맞아 동절기 보일러 CO(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해양에너지는 지난 8월에 입사한 채용연계형 인턴사원 10여명과 외부 활동 일환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을 진행했으며 지난 9월에는 팀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했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는 “동절기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통한 선제적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가스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23회 금요조찬포럼〉

초거대 AI시대 비즈니스모델 변화 및 기업 경영의 변화

(이경전 교수)

1623회 금요조찬포럼은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초거대 AI시대 비즈니스모델 변화 및 기업 경영의 변화」를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경영환경을 이야기하였다.

송정역에서 광주힐리데이인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갈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탈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잘 걷는 기계인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가 나왔다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잘 하는 ai가 나왔는데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더 잘하고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PT4는 질문의 길이가 영어단어 기준으로 2만 5천 단어, 한국어로는 3만 2천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중요한 업무 능력은 ai에게 길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3만 2천 글자로 질문을 하지만 곧 10만 글자까지 늘어날 겁니다.

실리콘 밸리의 한 회사는 인간의 코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인간의 언어나, 영상, 이미지는 처리하지만 냄새는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걸 개발한 겁니다. 냄새라는건 분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맞게 됩니다. 이걸 기계가 분자를 분석하고 장미향인지, 백합향인지 인간의 말로 학습합니다.

이 로봇이 상용화 된다면 이제 마약 탐지견이 로봇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을 발견하면 인간과 대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겁니다. 이것을 멀티 모달이라고 합니다.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하면 1분 만에 엄청난 퀄리티로 그려줍니다. 그림 디자이너는 직업을 잃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디자이너가 이걸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잘 그리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림을 잘 그리는 ai를 잘 활용할 능력도 필요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하는 회사나 사람이 그걸 못하는 회사나 사람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제 퇴근할 때 내일 아침에 봄시다가 아니라 ai한테 밤새 업무를 주고 퇴근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15시간 동안 ai가 최대한 일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ai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ai가 못하는 업무를 사람이 하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10.11)

-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급격히 높아졌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

-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에 달하며 (2023년 기준),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남.

② **(짧은 기준기간-기여기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도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

* OECD 주요국의 구직급여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개월, OECD, '22년)

▶ 기준기간: [韓] 18 [日] 24 [獨] 24 [佛] 24

▶ 기여기간: [韓] 7 [日] 12 [獨] 12 [佛] 130일 또는 910시간

-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원칙에충실한 제도 운영, 기금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민과 기업이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해 나갈필요

◆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 (10.10)

- IMF는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 23.7월)과 동일한 3.0%로 전망했으며, 2024년은지난 전망치(3.0%) 대비 0.1%p 하향 조정된 2.9%로 전망

Ⅲ. 노동경제동향

- IMF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發 금융불안이조기에 진정되면서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세계 경제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 6.9%, 2024년 5.8%로 각각 전망
 - ※ 지난 '23.7월 물가상승률 전망치(2023년 6.8%, 2024년 5.2%) 대비 2023년은 0.1%p 상향 조정, 2024년은 0.6%p 상향 조정
- IMF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IMF는 선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
- 한편,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3년 1.4%, 2024년 2.2%로 전망
 - * 지난 '23.7월 전망치 대비 2023년은 동일, 2024년은 0.2%p 하향 조정

◆ 한국은행, 「2023년 8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0.11)

- 2023년 8월 경상수지는 48.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8월 29.1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7.9('23.4)→ 19.3(5)→ 58.7(6)→ 37.4(7)→ 48.1(8)
 - ※ 2023년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10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1~8월 누적 경상수지(236.6억 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126.8억 달러 감소
- 상품수지는 50.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8월 41.4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서비스수지는 16.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2.9억달러 적자)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Ⅲ. 노동경제동향

-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14.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5.9억달러 흑자)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
- 이전소득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0.8억달러 적자)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2023년 8월 금융계정은 57.3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 (10.4)

○ 2023년 1~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39.2억달러로 전년동기(115.8억달러) 대비 20.2% 증가(도착 기준)

※ 최근 5년('18~'22)간 1~3분기 누적 FDI 실적 추이(억달러, 도착기준)

: 79.8('19.1~3q)→ 83.6('20.1~3q)→ 120.2('21.1~3q)→ 115.8('22.1~3q)→ 139.2('23.1~3q)

- 2023년 1~3분기 누적 기준 제조업 FDI 규모는 43.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9.5%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90.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

○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등에서 FDI가 감소 EU*, 중화권** 등에서는 FDI가 증가(도착 기준)

*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 중국, 홍콩, 대만

- 미국에서 유입된 FDI는 2023년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15.1억달러(전년동기대비 29.8% 감소), 일본에서 유입된 FDI는 7.5억달러(△6.4%)를 기록. 반면, 중화권에서 유입된 FDI는 7.9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93.4% 증가, EU에서 유입된 FDI는 38.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1% 증가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경제전망」 발표 (10.5)

○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실질GDP가 세계경제 둔화, 미·중 갈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1%, 2024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지난 '23.3월 전망치 대비 2023년은 0.4%p 하향 조정

Ⅲ. 노동경제동향

- 동 경제전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소득 여건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2024년 2.2% 증가하여 2023년(2.4%)의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 민간투자는 2024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2.6% 증가하여 2023년(1.5%)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 2024년 건설투자는 0.2%, 설비투자*는 4.5%,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4% 증가할 전망
 - *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경기 상승, 세제 개편으로 인한 국내 투자 유인 증가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및 대외불확실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은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2024년 7.0%로 2023년(0.3%)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총수입도 민간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2024년 7.5%를 기록하여 2023년(2.2%)보다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로 2023년(3.4%)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
 -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비용상승압력 완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3년(3.4% 상승 전망)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

2. 노사 동향

◆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하반기 노동개혁 추진 예고

-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0. 10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 계획 발표
 - ※ 고용부는 지난 6월~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및 FGI진행
 - ※ 고용부는 현재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며, 10월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다는 계획
- 고용부는 11월 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
- 또한, 고용부는「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 관련 권고문이 도출되면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
- 또한, 고용부는 지난달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 홍보’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노동개혁 정책 홍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
-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주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을 목표로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연계 행사 등 진행 예정
- 한편, 노조 회계 공시제도가 10. 1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 한국노총 산하 2개 노조(인천항운노조, 김포도시공사노조)를 포함한 총 16개 노조가 회계 공시를 진행(2023. 10. 12 기준)했으며, 회계공시마감기한은11. 30임.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0. 10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회계 공시 등을 통해노조를 압박하고 있으며 쉽게 타협하면 안된다고 주장

Ⅲ. 노동경제동향

◆ 노조법 개정안이 10. 6 본회의에 미상정된 가운데 국회는 2023년 국정감사 진행

- 야당은 10. 6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부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본회의 미상정

※10. 6 국회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국회 부의장이 위임을 받아 진행

- 이에 따라 야당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

※국회 본회의 일정 : 11. 9, 11. 23, 11. 30

- 한편, 국회가 10. 10부터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금번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는 ▲노조 회계공시,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정책이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